

LOST WORLD

남미 그란사바나 지방의 테푸이 산

베네수엘라 남동부의 그란사바나는 지질학적으로 아주 오래된 암석층 위에 형성된 대초원이다. 웅장한 강과 폭포, 높은 협곡, 넓은 평원이 어우러진 이 지역에는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동식물이 서식하는데, 그 대다수는 ‘테푸이’라 부르는 정상 부위가 평평한 탁자 모양의 산에 자리한다.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테푸이 산의 풍광을 담았다. 글 키키 디어

In Venezuela’s southeast lies the Gran Sabana, or Great Savannah — a vast territory boasting one of the oldest geological rock formations in the world. Its varied landscapes of mighty rivers, spectacular waterfalls, deep gorges and sweeping plains host some of the world’s most unique species of fauna and flora. They inhabit an area dominated by awe-inspiring table top mountains, or *tepuis*. By Kiki Deere



고산 지대 해발 2680미터 쿠케난테푸이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기암절벽을 타고 내려와서는 대초원과 열대 우림 지대 곳곳을 흘러 베네수엘라에서 두 번째로 긴 카로니 강을 낳는다. 쿠케난테푸이 동쪽에는 그란사바나의 상징과도 같은 로라이마 산이 솟아 있다. 이 지역 원주민인 페몬 족은 오래전부터 테푸이가 신들의 거처라고 믿어왔다.

Kingdom of the Heavens Snaking its way through the savannahs and rainforests of the highlands, the Kukenán River gives birth to the country's second most important waterway, the Caroní. Its source is the Kukenán Falls on the homonymous tepui, which reaches a height of over 2,680m above sea level. To the east sits its better-known sister tepui, the majestic Mount Roraima. The indigenous Pemón people have long revered these mountaintops, believing the tepuis to be dwellings of their gods.



신비의 장막 구름에 둘러싸인 로라이마 산 정상에는 가파른 바위 절벽이 하늘 높이 솟구쳐 있다. 해발 2810미터, 폭 8킬로미터의 로라이마 산 정상은 그란사바나의 테푸이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신비로운 풍경만큼이나 전설이 가득해, 아서 코난 도일의 소설 〈잃어버린 세계〉에 영감을 주기도 했다. 로라이마 산은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 브라질 3국의 국경에 있다.

Veil of Mystery Often enveloped in a cloud of mist, signaling the cloud forest ahead, the summit of Mount Roraima soars into the sky — springing off steep rock ledges. At 2,810m high and 8km across, it is the highest of the tepui range. It has been a place shrouded in legends, and its landscape served as inspiration for Arthur Conan Doyle's novel *The Lost World*. It acts as a natural border between Venezuela, Guyana and neighbouring Braz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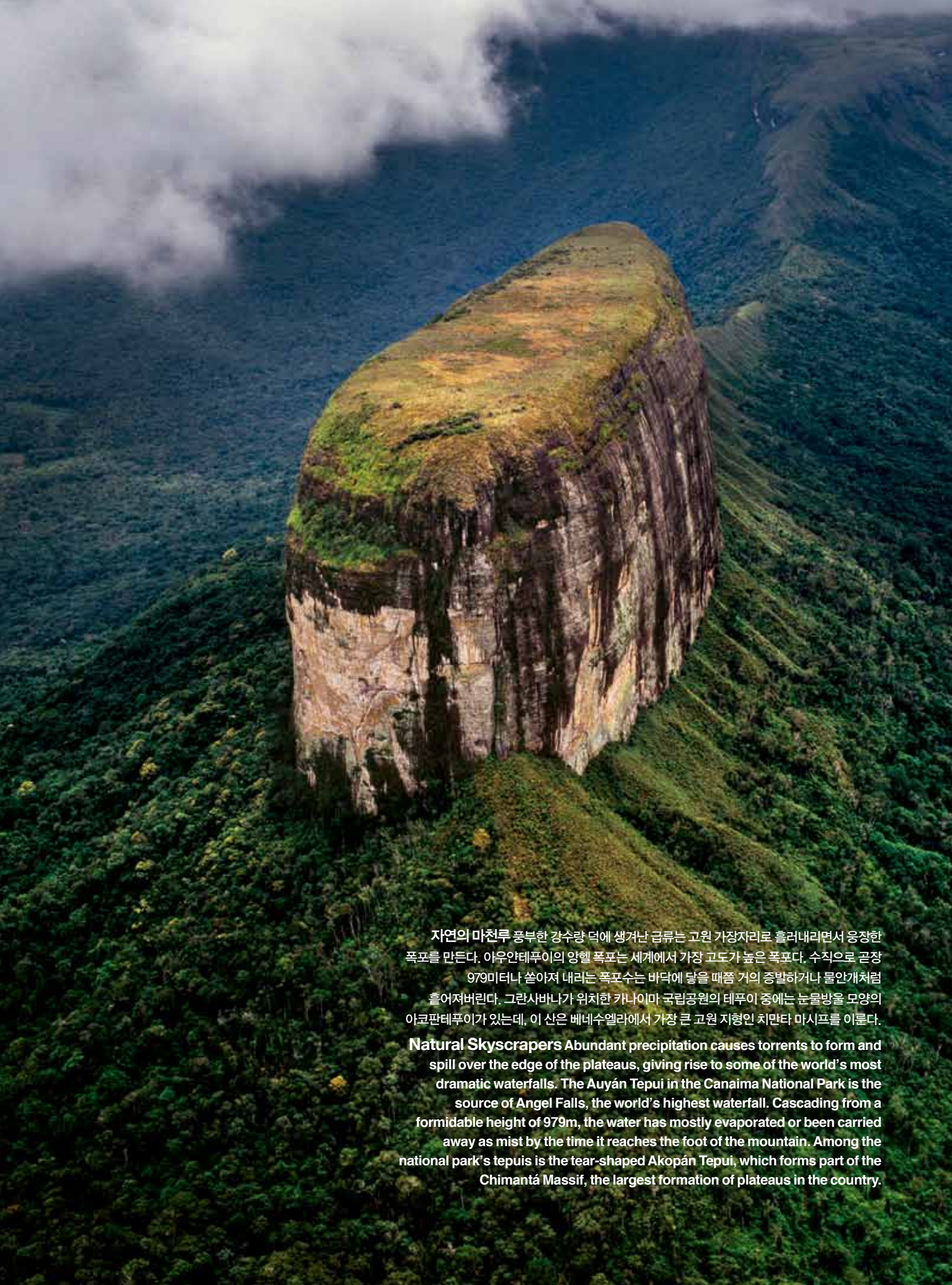
© Waldyr Neto / Getty Images / Multibits image

고원 지대 일 년 내내 비가 내리는 로라이마 산은 세상에서 가장 습한 지역 중 하나다. 토착종인 낭상엽(囊狀葉)과 끈끈이주걱 같은 식충식물은 습지에서 부족한 영양분을 곤충에서 취하며, 몸길이가 겨우 1인치에 불과한 '페블토드'라 부르는 두꺼비는 천적을 피하기 위해 고무공처럼 몸을 부풀린 뒤 습지 주변의 바위를 뛰어 다닌다.

Life on the Plateau Heavy year-round rainfalls make Mount Roraima one of the wettest places on earth. Numerous plants, such as the endemic carnivorous marsh pitchers and sundews, have adapted to the boggy terrain lacking in nutrients by supplementing their mineral uptake with the flesh of insects. Tiny Pebble Toads measuring just an inch escape predators by turning themselves into rubbery balls and bouncing off the jagged rocks.



© Jane Sweeney / Corbis / Topic Images; Last Refuge / Getty Images; Multibis Image (opposite)



자연의 마천루 풍부한 강수량 덕에 생겨난 급류는 고원 가장자리로 흘러내리면서 웅장한 폭포를 만든다. 아우안테푸이의 앙헬 폭포는 세계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폭포다. 수직으로 곧장 979미터나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는 바닥에 닿을 때쯤 거의 증발하거나 물안개처럼 흩어져버린다. 그란사바나가 위치한 카나이마 국립공원의 테푸이 중에는 눈물방울 모양의 아코판테푸이가 있는데, 이 산은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큰 고원 지형인 치만타 마시프를 이룬다.

Natural Skyscrapers Abundant precipitation causes torrents to form and spill over the edge of the plateaus, giving rise to some of the world's most dramatic waterfalls. The Auyán Tepui in the Canaima National Park is the source of Angel Falls, the world's highest waterfall. Cascading from a formidable height of 979m, the water has mostly evaporated or been carried away as mist by the time it reaches the foot of the mountain. Among the national park's tepuis is the tear-shaped Akopán Tepui, which forms part of the Chimantá Massif, the largest formation of plateaus in the country.



© Martin Harvey / Corbis / Topic Images

사암 지대 그란사바나의 거칠지만 아름다운 사암 지형은 수백만 년에 걸쳐 진행된 지질학적 침식 과정의 결과다. 테푸이의 역사는 15억 년 전 선(先)캄브리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까마득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사암 퇴적층이 형성되었고, 그 후 수백만 년의 세월을 지나며 침식되고 균열이 일어났다. 그란사바나에는 100개가 넘는 테푸이 산이 있지만, 사람이 탐험한 곳은 그중 절반도 되지 않는다.

Awesome Evolution The Gran Sabana's harshly beautiful sandstone formations are the result of a geological process of erosion that has lasted millions of years. The tepuis date back to the Precambrian period over 1.5 billion years ago, when a sedimentary layer of sandstone formed, ultimately eroding and fracturing over millions of years. The area is home to over one hundred tepuis, yet to this day less than half have been explored.



대한항공은 애틀랜타로 매일 운항합니다.
Korean Air flies Incheon → Atlanta daily.

●**카나이마 국립공원** 애틀랜타에서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를 경유해 시우다드볼리바르까지 가는 비행편이 있다. 시우다드볼리바르에서 카나이마까지는 경비행기로 1시간 거리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카나이마 국립공원은 규모가 약 3만 제곱킬로미터로, 그중 65퍼센트가 테푸이 산이다. 국립공원을 제대로 둘러보는 방법은 산악 비행이다. 기묘묘한 테푸이 산뿐만 아니라 열대 우림 사이로 굽이굽이 흐르는 강줄기와 강가 군데군데 자리한 오두막집을 볼 수 있다. 페몬 족 약 2만 명이 국립공원 내에 거주하며, 그들은 수렵과 채집, 곡물 재배 등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영위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공예품을 생산하는데, 이들 작품은 마을 상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카나이마 국립공원의 수풀 지대에는 '케브라다 데 하스페', 즉 '벽옥의 개울'이 있다. 준(準)보석쯤 되는 빨강과 검은 벽옥을 함유한 암석층 위로 얇은 물이 흐르며 작은 폭포를 만들고 때로는 거대한 폭포를 이룬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곳에서 나는 옥으로 남미 독립의 영웅 시몬 볼리바르의 조각상을 만들었다고 한다.

●**쿠케난테푸이** 이 거대한 바위산은 오래전부터 페몬 족에게 숭배와 경외의 대상이었다. 페몬 족은 이 불가사의한 장소에서 초자연적 현상이 곧잘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쿠케난테푸이는 지금까지도 전인미답의 처녀지로 남아 있는데, 사면이 수직 절벽으로 되어 있는데다 벽면에 균열이 심해 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산 정상 남단에는 총길이 674미터로 베네수엘라에서 두 번째로 긴 폭포수를 쏟아내는 폭포가 있다.

●**아우안테푸이** 700제곱미터의 하트 모양을 한 아우안테푸이는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 수리남, 브라질까지 이어지는 기아나 고원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형이자 가장 유명한 테푸이 중 하나로, 양행 폭포 소재지다. 아우안테푸이는 황금을 좇다 우연히 이곳을 발견한 미국인 탐험가 지미 에인절 덕분에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었다. 지미 에인절이 왜 아우안테푸이를 찾았는지, 어떻게 산 정상에 착륙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황금을 찾아헤매다가 불시착을 했고 일행과 함께 오도가도 못하게 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CANAIMA NATIONAL PARK** There are direct flights from Atlanta to Caracas, Venezuela's capital, and then on to Ciudad Bolívar. From here small propeller planes make the one-hour flight to Canaima village.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Canaima National Park occupies an area of over 30,000 sqkm, and is about 65% covered by table mountain formations. The flight over Canaima National Park is worth the trip alone: Meandering rivers flow through lush verdant jungle, with sporadic stray wooden huts precariously lodged along the banks. The park is home to roughly 20,000 Pemon Indians, who, to this day, maintain traditional lifestyles as hunter-gatherers and ancient methods of agriculture. Many produce beautiful traditional artifacts, which can be purchased at shops in the town of Canaima.

●**KUKENÁN TEPUI** The colossal Kukenán Tepui has long been both revered and feared by the Pemon people, who claim otherworldly phenomena have taken place in this arcane enclave. To this day it remains mostly

unexplored, mainly due to its largely inaccessible summit, with cracks and rocky mazes flanked by sheer cliffs. The southernmost tip of the tepui is the origin of the country's second-tallest waterfall, the Kukenán Falls, which plummets from a height of 674m.

●**AUYAN TEPUI** The 700sqm heart-shaped Auyan Tepui is the largest formation of the Guiana Highlands and is among its most renowned, giving rise to the acclaimed Angel Falls. The tepui gained worldwide fame when American gold-hunting adventurer and pilot Jimmie Angel accidentally discovered the falls, which were subsequently named after him. The precise story as to how or why Jimmie Angel landed on the Auyan Tepui remains unclear, although most accounts point towards a hunt for gold, which ultimately led to a heavy landing that left him and his passengers stranded on the peak.

자세한 문외는 ☎ **한진관광**으로 문의바랍니다.
More travel information is available from ☎ **HANJIN TRAVEL** www.kaltour.com

쿠케난테푸이
Kukenán Tepui



© Ed Darack / Corbis / Topic Images